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4과 사람 모양으로 예언된 세계 역사

[단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바르게 깨닫는데, 열쇠역할을 한다. 다니엘서 전체 예언은 2장 예언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다니엘서는 2장의 예언은 기초로 예언의 각 역사적 사건들을 점점 더 자세하게 계시하신다. 다니엘서 2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틀 안에서 다니엘서 전체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2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7장과 8장, 9장에 가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 이제 2장의 예언을 성취된 역사적 사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자.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단2:1]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이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단2:28,29]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바벨론의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은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였다. 이때가 재위 2년이다. 바벨론은 즉위년 제도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재위 2년은 실제로 왕이 되고 삼 년째일 수도 있다. 이 말은 왕이 선왕이 죽고 곧 즉위하여도 그 선왕이 통치하던 해의 남은 기간을 재위 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선왕이 2월이나 4월이나 언제든지 죽고 그 후계자가 왕위를 이어도 그 해는 재위 년으로 계산하지 않고 즉위한 다음 새 해부터 재위 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주위의 강국들을 다 정복하고 바벨론을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이 나라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의 장래를 생각한 것이다.

2. 왕의 고문관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왕에게 대답한 최종적인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단2:10,11]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고문단은 점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세상사의 길흉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왕의 나라의 일어나는 일들과 왕 개인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길흉을 해석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왕은 당연히 잊어버린 꿈과 그 해석을 그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당연한 사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왕은 꿈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라는 것이다. 그들은 평소에 비밀을 다 안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왕의 요

구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3. 노한 왕의 명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명령의 실질적은 주장자는 누구였을까?

[단2:12]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은 인간 느부갓네살의 분노로 내린 명령이지만 그 명령의 배후는 사단이다. 사단은 바벨론에 포로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감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바벨론 왕궁에서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된 신실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신다.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은 포로 된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회복하려 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수하들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획책하였다.

4.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하였는가?

[단2: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공홀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단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창40:8).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상의 장래를 꿈으로 보게 하셨으니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해석은 아주 정확한 것이다.

5.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단2:31-35]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의 장래를 계시하여 보여주셨다. 세상의 장래는 세상 역사의 미래이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세상의 장래사를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6. 그 해석은 무엇인가?

[단2:36-45]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제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네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빵을 것이며 41 왕께

서 그 밭과 밭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밭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대제국들을 가리킨다.

바벨론 605-538 메데바사 538-331 헬라 331-168 로마 BC168-AD476

왜 세상의 장래를 보여주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보여주셨는가? 예언의 핵심 사실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다. 그 역사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진행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국들을 취급하신 것이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침범하고 통치하고 속박한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의 왕들의 행사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펼쳐보이신 것이다.

7.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가르치려는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 꿈을 통하여 가르치려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 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런 역사적 나라의 끝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건설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건설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은 사람은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로 비유된 나라이다. 이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 나라의 성립- 역사적으로 성립된다. 이 열국 끝에 세워진다.
- 2). 하나님 나라의 위치- 이 세상이다. 돌이 세상에 가득했다.
- 3).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다.
- 4). 하나님 나라의 기간- 영원하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 5). 하나님 나라의 국민- 돌 나라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벧전2:4,5]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5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전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 같이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이상의 사실 외에 이 꿈이 해석하고 있는 역사철학은 무엇인가?

이 우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와 정강이는 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모양 자체가 진행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역사는 사람들이 진행시킨다. 사람의 형상으로 계시된 것.
- 2) 역사는 진행될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금에서 진흙으로.
- 3) 역사는 불안정하게 진행된다. 상체가 무겁고 강하며 하체가 가볍고 약하다.
- 4) 역사는 황금이 지배한다. 머리가 금.
- 5) 역사를 지배하는 사상은 바벨론 사상이다. 금 머리는 바벨론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역사는 바로 그렇게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없으면 이 세상 역사는 허무 자체이다. 우리가 산 돌 같이 산 돌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이다.

9. 이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서양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도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역사가는 이것은 2500년간의 역사를 가장 간단히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한 것이 다 이를 때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